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결과

□ 심사 개요

- 심 사 명 : 2026 국악창작곡개발-제20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6년 3월 5일(목) 10:00~17:0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

이름(가나다순)	주요 프로필	비고
고보석	-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단원 - 서울대학교 음악박사 - 제 14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대통령상) 수상	
박승원	- 월드뮤직 그룹 공명 - 건국대학교 영상학과 겸임교수	심사위원장
위중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 작곡가	
추다혜	- 추다혜차지스 리더/보컬 - 2026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추다혜차지스 <소수민족> 올해의 음반, <허세> 최우수 알앤비&소울-노래 수상 - 소수민족컴퍼니 대표	
홍민웅	- 안산시립국악단 단원 -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 - 2011 국악창작곡개발 제5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어쿠스틱 앙상블 제비) - 2021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선정 작곡가	

○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100점)	심사기준
대중성	30점	- 동시대성의 확보 및 대중 친화도
음악의 완성도	30점	- 노래곡, 연주곡별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곡
독창성과 창의성	20점	-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
국악적 요소의 반영	20점	- 국악어법(선율과 장단)이 살아 있는 곡

□ 심사 결과

○ 심사 결과 : 총 20곡 선정

팀명	참가곡명	구분
개호주 밴드	장기블루스	노래곡
SYOT(시오투)	시소	연주곡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	심술이나	노래곡
염경관	권마성(勸馬聲)	노래곡
적감(積感)	Be-life	노래곡
만월 프로젝트	무광성	노래곡
퓨전국악 그리샤	액(厄)소시즘	노래곡
소리:Born	Pulse	연주곡
Eeum	성류(星流)	연주곡
Tutti(뚜띠)	오색(五色)	연주곡
판도라	마키아	연주곡
숨 셋	신로새	노래곡
Lo-Hi's(로하이즈)	String Groove	연주곡
비랑(飛浪)	적토마(赤兎馬)	연주곡
하모예	Black wave	연주곡
포짓(4Jit)	허튼짓	연주곡
조선버전	청흔(靑痕)	연주곡
설화공방	新옹고집타령 '거울 속에 갇힌 사람'	노래곡
B-error(삐에로)	박-error(박이 고장났다)	노래곡
이사이	감돌아든다	노래곡

※ 선정곡은 접수번호 순으로 기재하였음.

※ 대회운영지침 제18조 3항 "예선 및 본선 심사결과 발표 후라 하더라도 음반, 공연, 방송 등에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선정된 작품이 추후 대회 운영지침에 기준하여 '발표곡'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 심사평

이름(가나다순)	심사평
고보석	<p>이번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창작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시선으로 한국음악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있는 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표현들을 모색하려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창작자들의 고민과 실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문고를 비롯한 전통악기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등장한 점은 매우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국악기가 단순한 음색적 장식의 더함이 아니라 전통어법을 품고 음악의 구조와 흐름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다면, 현대의 음악으로서 작품의 가치는 더욱 살아날 것이라 사료됩니다.</p> <p>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의 노력과 고민이 앞으로의 우리음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음악은 이러한 탐색과 시도가 쌓이며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길 위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p>

박승원 심사위원장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에 많은 참가자들의 고민과 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평가는 대중성과 곡의 완성도 그리고 창의성과 전통적 요소 순서로 살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을 엿볼 수 있었고 1차 예선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가능성과 아쉬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맥락을 대중성이라는 기준에 단편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통의 맥을 지키며 현대화된 작업이 되도록 연주의 밀도와 앙상블을 이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과 사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선함을 전해주는 팀도 있었습니다.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서 2차, 본선 무대에서는 더욱더 깊이있는 고민과 앙상블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시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중수	이번 21c 국악 창작 가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매우 인상적인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의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해석을 바탕으로 국악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균형 있게 표현하였으며 각 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진정성 있는 무대가 돋보였습니다. 앞으로 국악이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새로운 장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추다혜	많은 참가자들이 '대중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용음악적 구성에 집중한 점은 관객과의 소통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통음악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깊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각 팀이 자신만의 음악적 뿌리를 더욱 선명히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개성과 힘을 갖춘 음악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반면 결성한지 얼마 안 된 신생 팀들에서 신선한 에너지와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비교적 미니멀한 구성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보였던 기악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도전적인 태도와 창의적인 접근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며, 향후 행보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홍민웅	올해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지원자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개성 넘치는 곡들이었습니다. 특히 밴드 형태의 팀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확장과 화려함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근본적인 지점들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통 어법을 현대적인 문법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으로 국악기가 포함된 밴드음악이 아니라 한국음악의 DNA가 살아있는 현대 음악을 보고 싶습니다.

□ 시상내역 변경 안내

기존 내역	변경 내역
대상(1팀) 국무총리상, 상금 1천 5백만원	대상(1팀) 대통령상 , 상금 1천 5백만원
금상(1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8백만원	변경 없음
은상(2팀) 국립국악원장상, 국악방송사장상, 각 상금 5백만원	
동상(2팀) 국악방송사장상, 각 상금 3백만원	
장려상(4팀) 국악방송사장상, 각 상금 2백만원	

※ '2026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정부시상 선정 결과'에 따른 시상 내역 변경

□ 향후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비고
2차 예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2차 예선 안내 및 2차 예선 경연 순서 추천 - 2차 예선 기술사항 확인 등	3월 17일(화), 14:00~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DMS빌딩 12층)	- 팀 대표 또는 작곡가 1-3인 참석 - 모든 팀 참석 필수
2차 예선 (실연 심사 / 공개)	4월 4일(토)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 10팀 선정 예정

□ 문의처

o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4 / 21cproject@igbf.kr